

40절의 숨겨진 역사 - 숫자 11

열한 번째 수

Jeff Pippenger

2026-05-21

요엘서는 아마도 성경 가운데 늦은 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계시이며, 요엘은 먼저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성취한 배도의 네 세대를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요엘의 서두의 절들에 나타난 이 점증하는 파멸의 네 세대는 에스겔 8장의 점증적인 네 가지 가증한 일들과 일치한다. 1863년부터 1888년까지는 첫 번째 세대를 나타내며, 그것은 1843년과 1850년의 선구자 도표들 위에 제시된 바와 같고, 하박국 2장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표상된 언약을 상징하는 밀러파의 기초 기별을 거절한 것을 의미한다.

1888년부터 1919년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거절한 세대를 나타내며, 그 결과 빌라델비아 교회로 표상되는 경험을 산출한다. 첫 번째 세대에서 반역은 윌리엄 밀러로 대표되는 지도력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1888년의 두 번째 세대에서는 예언의 신의 지도력이 거역을 당하였다. 1919년의 세 번째 세대는 윌리엄 워런 프레스콧의 저서 『The Doctrine of Christ』로 시작하여 1956년의 『Questions on Doctrine』으로 끝났다. 그 세 번째 세대는 재림교가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의료 관행에 대한 인가와 배도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학문적 학자들에 의한 그들의 대학 인가를 추구함에 따라, 세상과 타협한 세대였다.

제3세대에 이르러 엘렌 화잇의 필로 기록된 교육적 권면은 거절되었고, 그 대신 그리스의 교육 철학으로 표상되는 세상의 거짓 교육 관행으로 대체되었다. 그리스 교육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복제 파르테논 신전에 봉안된 여신 아테나로 표상된다.

참된 교육은 성경에서 선지자 엘리사와 연관된 선지자들의 학교를 통하여 모범적으로 제시되었다. 기원전 167년의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은, 상당 부분, 고대의 문자적 영화로운 땅의 문화와 나라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헬라 교육에 대한 항의였다. 마카비의 항거는 모든 차원에서 헬라의 영향력에 맞선 반란이었으나, 헬라의 교육적 영향은 마카비 열심당원들의 역사와 동기 속에 너무도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었으므로, 헬라 교육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거절한 것과 관련된 아마도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사실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헬라 교육이 유대인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과, 거짓 교육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거절과 그리스도 십자가형에 기여한 바를 밝히는 책들이 저술되어 왔다.

마카비 혁명은 현대의 영적 영화로운 땅에서의 1776년 혁명과 부합한다. 현재 미국에는 그리스 철학과 예수회식 교육 관행의 철학 위에 세워진 등록 대학이 4,000개가 넘는다.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무정부 상태와 불법은, 프랑스 혁명기의 사탄적 철학들에서 비롯된 세계주의 철학을 받아들이도록 이미 언론과 오락 매체에 의해 길들여진 학생들을 수십 년 동안 세뇌해 온 미국의 이른바 교육 중심지들에 직접적으로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백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미국의 참된

역사를 공격하도록 고안된 교육 기관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소동과 고모라로 상징되는 생활방식을 받아들일도록 길들여져 있었다. 오늘날 미국의 시민으로서, 성경과 예언의 신이 밝히는 바와 같이 정의와 진리가 거리에 내던져지는 일을 성취하는 끊임없는 이중적 사법 체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현재의 상황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격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공격은 인간을 엘리트 세계주의자들—곧 그 용의 세력!—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 고안된 교육 제도를 통하여 삶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주입되고 있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엘렌 화잇의 저술에는 다섯 가지 주요 주제가 있는데, 곧 교육, 건강 개혁, 그리스도인의 생활, 대쟁투 주제, 그리고 실제적 경건이다. 교육은 예언의 신의 다섯 가지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이며, 엘렌 화잇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적 선지자였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녀의 생애가 십사만 사천의 한 본보기이며 또한 그들을 위한 본보기라는 뜻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명의 교사를 두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15, 16.

예언자로서 엘렌 화잇은 하나의 본보기이다. 엘렌 화잇이 이사회에 구성원이라는 역할을 받아들인 때는 단 한 번뿐이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사역의 다섯 가지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참된 교육의 원칙을 수용한 한 대학의 설립과 관련해서였다. 테네시 주 매디슨에 있는 그 대학은 테네시 주 내슈빌의 대도시 권역 안에 위치해 있다. 그녀는 1904년부터 1915년, 곧 그녀가 죽기 1년 전까지 매디슨 대학의 설립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동의했을 뿐 아니라, 그 대학이 세워질 토지를 선정하는 일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내슈빌은 그리스 교육 체계의 중심지인데, 그 체계는 마카비 시대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하였으며, 그 마카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배도한 개신교를 예표한다. 마카비의 계보는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이제 바로 동일한, 비록 현대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 교육의 파괴적인 열매들로 완전히 교화된 배도한 개신교를 나타낸다.

재림주의의 제3세대에서, 1888년에 예언의 영을 거절하였던 지도부는 그들의 교육 제도를 세상의 인가 체계에 넘겨주기로 선택하였다. 내슈빌은 참된 교육과 거짓된 교육, 양자의 상징적 중심을 나타낸다. 선지자는 세상이 헬라식 교육을 기념비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선택한 바로 그 도시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헬라식 교육이 전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진리를 서로 분리된 개별 과목들로 나누는 데 기초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참된 교육은 화잇 자매의 다른 네 가지 주요 주제, 곧 건강 개혁, 실제적 경건, 그리스도인 생활, 그리고 특히 대쟁투라는 주제의 기초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끝을 시작으로 설명하시며, 에덴동산의 시험은 지금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을 예시한다. 마지막 때의 시험은 모든 성경적 시험과 동일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성경적 시험은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며, 그 시험 과정의 끝에서 드러나는 두 부류를 산출한다. 첫째 천사는 그 세 단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이는 심판의 리트머스 시험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표현한다. 첫 번째 단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필요한 경외가 부족했던 하와는 그 나무의 시험에 실패하여 선과 악으로 함께 표상된 열매를 먹었다.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그가 그 나무의 반역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그 결과 그들 모두 위에 심판이 내려졌으니, 이는 그들이 신성의 지속적인 임재 없이 사는 삶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들의 시험은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봉해졌다가 풀린 지식의 증가를 먹으라는 경고로 시작된다. 재림주의 안에 있든지 재림주의 밖에 있든지, 그 시험은 우리 시대에 봉함이 풀린 “지식”의 증가를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에 기초해 있다. 그 지식의 시험은 선이나 악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시험의 동산의 나무로 표상된다. 참된 교육은 1904년에 테네시주 내슈빌에 자리 잡아 상징되었고, 거짓 교육은 1897년에 내슈빌에 자리 잡아 상징되었으며, 이어 1920년에 영구적인 구조물로 다시 세워졌다. 여선지자의 생애 속에서 참된 교육은 내슈빌에 안치되었고, 거짓 교육도 또한 안치되었다. 1915년 그녀의 사후에, 거짓 교육은 파르테논 신전의 두 번째이자 영구적인 건축을 통해 복원되었고, 참된 교육은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지도부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거절되었다.

내슈빌의 별칭인 “남부의 아테네”는 1897년 센테니얼 박람회의 중심 건축물로 그 건물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박람회에 세워진 여러 건축물은 고대의 원형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파르테논만은 유일하게 정확한 복제품이었다. 오늘날 테네시주 내슈빌은 음악으로 유명하지만, 조니 캐시 박물관이 있기 전에 내슈빌은 노래가 아니라 교육으로 유명하였다.

1850년대에 이르러 내슈빌은 이미 수많은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남부의 아테네”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미국 남부에서 최초로 공립학교 제도를 확립한 도시였다. 세기말에 이르면 내슈빌에서는 Fisk University, St. Cecilia Academy, Montgomery Bell Academy, Meharry Medical College, Belmont University, Vanderbilt University가 모두 문을 열게 된다. 당시 내슈빌은 부와 문화가 충만한, 남부에서 가장 세련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불법의 비밀은 영감된 말씀 가운데서 명사이면서 동시에 동사이다. 영감은 사탄과, 화잇 자매가 사탄의 “오른팔 사람”이라고 부르는 교황을 불법의 비밀로 지목한다. 그러나 “불법의 비밀”은 또한 진리와 오류의 혼합을 묘사한다. 요엘의 네 세대에 걸친 배도는 에스겔 8장의 점증하는 네 가지 가증한 일과 일치한다. 이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의 처음 네 교회와 일치하며, 셋째 교회는 이교주의와 결합된 기독교에 대한 콘스탄티누스의 타협으로 대표된다. 이 처음 네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일치하며, 그 역사는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셋째 세대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코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다른 민족들과 동맹을 맺었다. 요한계시록에 제시되어 있는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교회의 평행 관계는, 「하박국의 판들」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제시된 예언적 주제이다. 요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넷째이자 마지막 세대를, 에스겔의 네 가지 점증하는 가증한 일들 가운데서

해를 향해 경배하고 있는 스물다섯 장로와 일치시킨다.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가 일요일 법에서 해를 향해 경배함으로써 끊어지는 그 넷째 세대는, 538년 혹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서의 교황권의 통치를 상징하는 두아디아의 넷째 교회와 일치한다. 셋째 교회인 버가모는 고대 이스라엘이 이방 왕국들과 연합한 경우이든, 혹은 콘스탄티누스가 이교주의를 그리스도교와 결합한 경우이든 "타협"을 나타내며, 그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의 셋째 세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미합중국의 네 세대는, 다른 여러 진리들 가운데서도 400/430년의 속박 기간 동안 애굽으로 예표되었으며, 그 기간은 홍해의 물속에서 바로가 익사함으로 끝났다. 그 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심판받기로 되어 있던 그 나라의 종말을 표시하였다. 미합중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심판이 종결되는 기간에 심판을 받으므로, 바로의 생명을 끝낸 그 물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동안 그 물을 제자리에 붙들어 두고 있던 동풍의 해방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임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풍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진이 이를 때 일요일 법을 치는 셋째 화이다.

땅의 짐승의 넷째이자 마지막 세대에 선행하는 세대는 공화주의적 뿔과 프로테스탄트적 뿔 양쪽에서 성취된다. 그 셋째 세대에서 이루어진 공화주의적 뿔의 타협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났으며, 그것은 미국이 그 경제 구조를 연방준비제도의 세계주의자들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음을 표지하였다. 바로 그 동일한 시기에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그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이 세속적 교육과 의학의 기준에 따라 "인간"받기를 추구하였다. 동사로서 "불법의 비밀"은 콘스탄티누스와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상 권세들과 타협한 일을 나타낸다. 그 타협을 묘사하기 위하여 영감으로 사용된 단어는 "혼합"이며, 이는 엘렌 화잇 당시의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혼합물로 섞거나 결합하다; 뒤섞다."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는 혼합의 나무, 곧 타협의 나무이다. "마지막 큰 투쟁"은 일요일 법 위기이며, 그 위기를 위한 사탄의 준비는 인간의 지혜를 신적 계시와 혼합하는 "불법의 비밀"이다.

"사탄은 마지막의 거대한 투쟁을 위하여 분주히 그의 계획을 꾸미고 있으며,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어느 한편에 서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목소리들과 세력을 들으며 주목하라. 기도의 소리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되고 있다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이는가? 제사장들은 있다.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와 율법을 그들의 발아래 짓밟고 있다. 그들의 의복은 영혼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 무리들은 마귀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그대들이여, 보라. 상상 가운데 사탄의 제단에서 경배하고 있는 광대한 무리들을 보라. 고등 교육이라 불리는 그 음악을, 그 언어를 들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는가?—불법의 비밀." Pamphlets, 004, 11.

마지막 대쟁투에서 "모든 사람이 편을 가르게 될" 때, 에덴동산의 시험이 반복된다. 시작에 있어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한 나무에 국한되었던 그 시험이 마지막에는 온 세상에서 반복된다. 최후의 전투에 앞서 사탄이 행하는 일은 "불법의 비밀"이며, 이것은 "고등 교육"으로 규정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나라에서 "고등 교육"의 상징은 테네시주 내슈빌, 곧 '남부의 아테네'에서 발견되는데, 그곳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한때 내슈빌에서 매디슨 칼리지가 대표하였던 참된 교육과 대조를 이룬다. 영감의 말씀에서 나온 다음의 진술은 이 글의 끝부분에 전문으로 인용되어 있으나,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땅의 역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일에 매우 크게 작용하는 불법의 비밀을 신중히 탐구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회복된 낙원에 이르는 중간 길은 없다.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사람에게 주어진 기별은 인간의 고안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높은 신임의 지위로 높이신 자들이 하늘의 빛에서 돌이켜 인간의 지혜로 향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할 품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분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셔서 세상에 전하게 하신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 『원고 자료집』, 제18권, 30-36.

“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은 마침내 두 부류의 경배자들을 산출하는 시험의 과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모든 사람을 나타낸다. “지혜로운 자들”은 필요한 “지혜”를 확보하는 사람들이다. 그 시험의 과정은 인간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봉함 해제될 때 시작된다. 그 봉함 해제는 “지식의 증가”를 시작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관련된 시험에 직면하는 자들은 일요일 법령 때 동풍이 도래하기에 앞서 인도하고, 준비시키며, 성결하게 하도록 마련된 예언적 지식의 “기름”을 확보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거나 거절하게 될 하늘의 떡의 위조물을 상징한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 사건으로 더 많은 제자들을 잃으셨다. 거기서의 시험은 그리스도의 예언적 말씀이 문자적인가 영적인가 하는 것이었으며, 그 시험에 실패한 자들은 실패하였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 시험에 실패한 자들은 진리를 헬라인들로 대표되는 인간의 지혜와 혼합하였다.

하와가 동산에서의 실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 둘 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계시의 경이로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결코 그 능력을 경박한 주제들에 쏟아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날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저속한 문학과 한가한 오락에서 혐오감을 느끼며 돌아설 것이다. 성경의 시인들과 지혜자들과 교통하였고, 믿음의 영웅들의 영광스러운 행적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감동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바로들과 헤롯들과 가이사들의 업적을 숙고하고 찬양하거나 가장 저명한 세속 작가들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순결하고 정신이 고상한 상태로 그 풍성한 사상의 들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청년들의 능력은 대부분 잠자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주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은, 그의 종교적 원칙을 방해할 어떤 세력의 영향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신력과 안정성과 확고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이유는, 사람들이 하늘과의 연결을 끊어 버린 채 위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Messages to Young People, 255, 256.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어야 했는데, 이것은 십사만 사천의 한 속성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이며, 이는 예언의 말씀이 개봉될 때 시작되어, 마침내 지혜로운 부류와 어리석은 부류를 산출한다. 지혜롭게 될 운명인 자들에게 있어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것이다. 하와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시험의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으며, 이어서 심판의 때에 직면하여 라오디게아의 별거벗음을 드러내었다.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곳에 함께 앉고자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분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의 생애 전체는 순결하고 사심 없는 자비를 계발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인간 본성을 취하셔서, 타락한 세상과 사탄과 그의 회당과 하늘의 우주와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에게, 당신의 신성과 연합된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수 있음을 입증하셨다. 모든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라고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떠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무능함을 온전히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존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줄 하늘의 햇불은 오직 신적 제단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인도 아래 두시며,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Bible Echo, 1896년 7월 20일.

진리와 오류의 혼합은 사탄의 역사이며, 이것이 곧 불법의 비밀로 지목되는 것이다. 조사심판의 마지막 움직임들에서 온 인류의 타협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안치되어 있다.

“우리의 청년들을 대학에 보내어, 그들이 그 언어들을 익히기 위하여 연구하는 불신적 저술가들의 사상으로 그들의 머리와 마음이 채워지고 있는 동안, 그들의 시간을 헬라어와 라틴어 지식을 얻는 데 바치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위대한 교사의 교훈과도 조화되지 않는 지식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받은 자들은 자만심이 크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등 교육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배우는 자들이 아닌 것처럼 교만하게 처신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봉사를 위하여 무능하게 되어 버린다. 많은 이들이 비교적 무익한 교육을 얻는 데 쏟아부은 시간과 수단과 연구는, 그들을 실제 생활에 적합한 전인적 남녀가 되게 할 교육을 얻는 데 사용되었어야 했다. 그러한 교육은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떠날 때 무엇을 지니고 갑니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될 것입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 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혜로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한 가정의 머리에 서서 지혜로운 교사로 설 수 있습니까? 그들은 가정생활에서 자기 자녀들을 그와 같이 가르쳐, 그들의 가정이 하늘 가족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고등 교육'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고등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늘의 모습을 닮지 아니하는 교육, 젊은 남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지 아니하는 교육,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가정의 머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 아니하는 교육은 어떤 것도 고등 교육이라 불릴 수 없다. 만일 한 청년이 학교생활 동안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불신 저자들의 저술에 담긴 사상을 아는 지식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그리 큰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종류의 교육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셨다면, 인간들에게 맡겨진 가장 위대한 사업, 곧 세상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일을 하도록 그분께서 교육하시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지 아니하셨겠는가? 그러나 그와는 달리, 그분께서는 거룩한 진리를 그들의 손에 맡기셨으니, 그것을 그 단순함 그대로 세상에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학자들이 필요한 때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언어들을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옳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이 그것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대한 지식이 고등 교육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라 부르는 것의 신비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하지 않다. 참된 고등 교육을 배제하고, 배우는 자와 함께 멸망할 궤변과 유전을 마음에 채워 넣는 자는 사탄이다.

"거짓된 교육을 받은 자들은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는다. 그들은 참 빛이시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그분을 볼 수 없다. 그들은 영원한 실재를 허깨비처럼 여기며, 원자를 세계라 부르고 세계를 원자라 부른다. 소위 고등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너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실제적인 업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며,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수고할 것인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Review and Herald, 1897년 8월 17일.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대한 경고는 임의의 한 도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과 미국과 세상 위에 직접 내려진 심판이다. 내슈빌의 불덩이들은 재림교의 여러 범주와 땅의 짐승과 세상을 위하여 서로 다른 속성들을 나타낸다. 내슈빌의 불덩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되는 거짓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다양한 표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일로 두드러지게 알려진 자들의 사악한 성품과 유혹하는 영향력을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역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크게 드러나는 불법의 비밀을 신중히 찾아내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 비밀 결사와 동맹 속에 스스로를 결속시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 지배 권세의 거민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제시는, 진리의 빛을 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이 모든 악으로부터

분명히 떠나 있게 하여야 한다.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인들은 점점 더 그들의 악한 행위를 드러낼 것이다. 이는 두 부류밖에 없기 때문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의 원수 됨은 주께서 분명히 규정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길을 따르고, 사탄의 유혹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며,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함으로써, 헛되이 스스로를 높이고 복되게 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성실과 충성을 잃어버렸으며, 온 인류 가족에게 악과 고통의 홍수를 터뜨려 놓았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험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자기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방도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하는 것임을 언제 배우게 되겠는가?”

“사탄은 인간적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의 고안들을 침투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그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혹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이기를 구하고 있다.

“안식일을 주의 첫째 날로 변경함으로써,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언을 믿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길과 계획을 따르되 그것들이 자기들의 눈과 그릇된 판단 속에서 심히 지혜롭게 보이게 한다. 그는 인간적 정책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계명들을 인간의 전통보다 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한다. 그는 이렇게 하여 인간 대리자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행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죄의 실험이 행하여진 후인 지금도, 책임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인간 대리자들과 더불어 행하는 사탄의 음모는, 우리의 첫 조상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피하여야 할 대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지배할 권리를 과대평가해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그의 품성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교회들과 요양원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들의 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 제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껴 온 듯하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단계에서 예수께 배우게 하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권위가 되셔야 한다.

우리의 교사가 되어 오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큰 세속적 이익을 제시하는

듯이 보이는 사탄의 제안들을 거절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하나님께서 친히 놓으신 견고한 기초 위에 굳게 서는 대신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한 영향은 거둬들여 되풀이되어 왔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곧은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을 혼란에 이르게 할 것이며, 동일한 시험과 시련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도 지혜를 가르쳐 주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변하셔야 할 사람이 아니심을 배우게 되겠는가?

바른 길에서 떠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신 책임들을 붙들고자 끊임없는 열병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사와 모든 의사에게 진리의 단순성을 유지하라고 요구하신다. 구약과 신약에 모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우리 세상의 구주이시다. 모든 의료 선교사는 그분에게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면, 그를 신뢰하는 영혼들을 그릇 인도하게 될 것이다. 평범한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교육받고 높임을 받아 그들의 계획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두 조심하도록 하라.

죄의 음모는 무한한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재난과 모든 고통과 죽음은 악의 세력뿐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이다. 영원히 거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그 진리를 알고도, 사람이 사탄의 교활함에 순응하는 데 나타내는 연약함은 실로 지극히 기이하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밝히 선언하신 바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죄가 성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진리의 완전한 성화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생명과 불멸의 편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품성과 말과 정신에 변화가 없으면, 영혼들은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회복된 낙원으로 이르는 데에는 중간 길이 없다.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사람에게 주어진 기별은 인간의 고안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 법률가들의 정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탄의 대리자들에 의해 눈멀게 된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은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를 믿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는 사람들에게 인격을 빚어 가는 강권하는 능력이 되는 믿음을 부여하며, 사람들을 단순한 형식적 행위보다 더 높은 데로 이끈다. 우리의 말과 행위와 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빛과 축복도 이 마지막 날들에 범죄와 배도에 대한 안전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높은 신임의 직분으로 높이신 자들도 하늘의 빛에서 떠나 인간의 지혜로 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빛은 흑암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들의 능력은 울무가 되며,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께 거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분에게서 떠나는 일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언제나 확실한 결과를 뒤따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저지르고도, 그것들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단호히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는 기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침내 많은 죄를 거리낌 없이 범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는 품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분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요한에게 주신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8, 30–36.